

제 7기 서여대협 동부지구 93년 총화서

올해들어 제일 많이 간부들을 괴롭혔던 말이 '변화' '새로운 흐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작년 대선의 영향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 새로운 흐름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93학번 새내기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어느해보다 두드러지게 새내기에 대한 진단과 고민을 많이 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변화에 표류하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절박하다보니 올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검허하고 솔직하게 올해를 겪으며 부딪혔던 많은 문제와 고민을 총화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해에 못지않게 올해 총여학생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진하게 했었습니다. 연초부터 윤금이씨 투쟁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투쟁해 왔고, 봄에는 학자, 이어서 학교주변 퇴폐문화 물갈이 운동을 전개했으며, 여름에는 윤금이씨 투쟁을 총화하는 마당으로 기활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했습니다. 가을에는 성특법제정싸움을 새로운 각도에서 맞이하였고 총화사업 또한 힘차게 벌여왔습니다. 동부지구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늘 풀리지않는 문제들, 그리고 막연한 문제들을 모아보면서 다음해의 힘찬 도약의 밑받침을 준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토론들을 진행해내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려움속에서 검증해내었던 것인만큼 이후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사상운동 측면에서

여학생운동은 그 기반을 여학우 대중으로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여학우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해내야 합니다. 여학우의 삶을 이해하고 고민의 근간을 파헤치는 것이 여학생운동의 사상운동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여학생운동의 사상운동은 이것이다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화하는 여대생의 삶의 모습을 토론해 보면서 근접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구현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과제로 남기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세대'라는 말이 많이 오고갑니다. 소위 신세대들은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야무지고, 할건 하고 안할건 단번에 거절할 줄도 알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하고, 자아성취감이 강하고 그러다보니 매사에 자신감이 많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입시경쟁을 뚫고 들어온 만큼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문인으로 성공하기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신데렐라의 꿈을 꾸기보다는 캐리어 우먼으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진취성과 함께 제도교육속에서 길들여진 소극성이 함께 존재하면서 갈등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취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여 갈수록 여대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데 비하여 우리 여학생운동은 아직 차별을 중심으로, 소극성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을 진단해 왔습니다. 물론 변했다고해서 근본적인 토대가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정서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에 맞게, 그 정서를 기반으로 운동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대생들의 객관적인 삶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렇듯 정서는 변화했기에 이를 기반으로하는 여학생운동의 내용 또한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한데 기반하여 정해

저야 할것입니다.

첫째,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여학생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는 운동)

이제까지의 여학생운동은 차별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 되었다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근간으로 운동을 풀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여성이 억압당하고 상품화되는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에 기초하되 그 차별과 억압을 해결해 나갈 주체인 여성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주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를 원동력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자신에대한 사랑, 여성으로서의 자신에대한 자긍심을 원동력으로 운동을 풀어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개성, 자의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학우들의 장점찾기, 여학우들의 장점살리기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 자신부터 자신을 여성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고 이것이 넓어져 서로를 아끼는 진한 자매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여학생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둘째, 우리 시대의 올바른 여대생 상의 정립과 구현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집단이라든가 공동체라는 말들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고 그것을 평가할 기준도 명분도 사라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여학생운동의 모색을 위와같이 자긍심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할 방향성의 제시가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설득력을 얻으면서 함께 토론속에서 합의하고 정립해나갈 올바른 삶의 정형을 꾸준히 끈질기게 제기하고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정형은 토론과 연구, 조사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할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여대생의 모습은 상충이 쌍구를 굴려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되기에 정말 중요한 사상운동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학우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중심으로 틀어 쥐어야 할 우리의 내용이 바로 올바른 여대생의 모습을 합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2. 조직운동 측면에서

현재 총여학생의 조직운동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기에 이제까지 총괄적인 진단과 과제가 정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정정도 공통적으로 합의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래의 내용문제

총여학생회의 하부토대는 단대,과의 여회나 여부입니다. 그아래로는 여학생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다고해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학생소모임의 내용이 구태의연하거나 친목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기위해서는 단대나 중앙의 전문적인 자기내용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한데도 중앙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나 여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조직의 하부토대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사항임을 각인하고 여기에 인자의 배치와 여건의 조성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내용의 부재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의 해소에 또 하나의 과제는 이것을 주로 고민하는 여부장, 여회장들이 공동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허리의 제자리 찾기

이 부분은 학교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다양해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이 다 책임지지 못하고 다양화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묶어내면서 다양화해내는 것이 단대라 할 수 있는데 같은 학교내에서도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도가 어렵고, 집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대는 과를 잘 묶어내면서 단대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며, 중앙으로 이러한 역량을 잘 모아주어야 하는데 아래도 못모으고, 중앙과도 결합이 안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주체의 문제에서 여학생운동의 재생산이 어려운 문제를 들수 있겠고 또 중앙의 지도가 미흡한 문제를 들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의 문제입니다. 총여학생회장을 중심으로하여 중앙운영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단대의 내용을 고민할 수 있도록 내용적, 물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지도를 근간으로 자활력을 강화해내면서 단대의 여학우들의 구심으로 세워져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한 과여부장들을 모으는 단대운영위의 활성화와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3) 중앙은 아래를 잘 돕고 전체로 잘 모아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도내용이 연구 되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는 하부토대 강화의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비대한 대중사업으로 인하여 과, 단대를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지도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내용 또한 다분히 사업 하달식이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문제를 받아안은 내용 연구와 발굴이 미흡했습니다.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조직상황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위를 중심으로한 지도내용 연구와 정책생산이 중요합니다.

둘째, 집중과 분산을 잘해내어 상하층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학생회는 전문적인 독자적 내용과 전체 학생회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야하기에 시기적절한 집중과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하층의 체계속에서 중앙집중과 단대자활력강화의 관계를 잘 해면해내어 무리하게 하부를 동원하는 식의 사업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집중식 사업보다는 단대로 잘 배분해내는 사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연대조직에대한 문제의식 (동부지구 운영위를 중심으로)

총여학생회는 여대협을 그 상층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직 정보를 얻어가는 수준으로 머물거나 각 학교의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받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학교의 상황이 나름대로 벽차고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회의 나오는 것도 힘이들고 그 회의에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까지 논의 되었던 문제의식은

하나, 지구운영위의 내용

올해 동부지구가 출발하면서 지구운영위를 정책생산의 단위로 승화시키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에대한 학교에서의 위상정립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총여학생회장님들의 지구에대한 공동적인 책임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둘, 지구운영위의 내용과 학교에서의 정치사업의 문제

총여학생회장님들이 지구운위를 나오면서 가장 첨예하게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구운영위의 논의내용을 학교로 가져가면 희석화되거나 학교상황때문에 매몰되어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때 부회장님과 공유가 첫번째로 이루어지면서 집행부, 운영위로 확산되어나가야하는데 실지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대협의 중심내용이 기층에서 올라온 것이기보다는 터지는 사안에 대응하는 형식이다보니 하향식 정치사업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층이 먼저 준비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라도 핵심적인 것을 잡아 상하층의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셋, 지구운영위의 지도의 문제

총여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지구운영위나 서여대협의 지도의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행국이 튼튼히 확보되고, 의장의 연대사업에 대한 학교의 보장이 받침이 되면 많이 해결될 소지가 보이지만 역시 사람의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대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토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 부서별 연석회의의 문제

올해 굳게 다짐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에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수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어떻게 지구운영위에서 책임질 것인가가 논의 되어야 합니다.

다섯, 의장에 대한 문제

올해 역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의장이 빨리 뽑혀야만 지구운영위의 내용도 빠르게 정착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나 없이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의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올바른 과정을 통한 민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보장, 주체의 드높은 결의,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잘해봅시다.

(4) 자긍심있고, 실천하는 여회간부

이제 조직운동의 골짜라고 할수 있는 조직을 열고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학생간부의 삶을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의 문제

하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활동가로서 자기발전에 치열한 모습이 부족합니다. 여회라는 공간에 매몰되다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자신을 부단히 발전시켜 자기 한계를 깨나가는 자기혁신의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변혁운동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정치정세, 학내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자기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의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늘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대중을 만날때나 타 간부들을 만날때 자신감있게 만날 수 있을것입니다.

둘, 발로 뛰고 연구, 조사하는 자세를 자져야 합니다.

앉아서만 사업을 구상하고, 학우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을 폭넓게 목적의식적으로 만나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모습, 발로 뛰면서 정보를 확보하고, 그에 기반하여 실사구시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여회 간부들의 대중속의 자기기반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은 여회라는 공간속으로의 매몰, 실천하지 못하는 안일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발로 뛰면서 실천하고 자기기반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 관계의 문제

하나, 여회간부들은 작은 것도 잘 챙기고 책임지려 합니다.

여회간부들은 유난히 끈끈한 애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인간적으로 잘 챙기고 책임지는 모습은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위의 폐쇄성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일반 여학우, 타 단위 간부와도 폭넓게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둘, 자긍심을 갖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여회간부들은 피해의식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 됩니다. 남성중심의 운동풍토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실현해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자기내용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나 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회간부로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있는 태도는 대중이나, 타간부들과의 만남속에서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사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이 때로는 무조건 감싸고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자주적으로 높여내고 정치적인 관계로 질적으로 승화된 관계를 맺어 가야겠습니다. 애정에 기반하여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이 아닌 서로에게 배울수 있는 관계, 사상적으로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질 높은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 넉넉한 마음으로 대중을 믿고, 변화를 일구는 여회간부가 됩시다.

여학우 대중은 변화는 더디지만 한번 변화면 가장 확실하고 아무지게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번 만나지도 않고 쉽게 지치거나 사업속에서 한번에 변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끈질기고 꾸준한 만남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책임지려 한다면 꼭 남는 사람이 됩니다. 조급함으로 여학우를 재단하고 실망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여유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중을 믿지 못하는 운동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대중운동 측면에서

(1) 대중운동을 펼치는 운동방식과 사업작풍의 문제

<사상운동이 삶을 근간으로 한 자주성 고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조직운동은 그것을 엮어가는 사람들간의 짜임새를 말하고, 대중운동은 이것을 기반으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기간의 여학생운동의 대중운동이 보여온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중성과 지도성의 문제

대중운동이 올바르게 대중의 힘이 모아지고 발휘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와 대중의 올바른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대중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과 대중의 흐름을 모아내는 것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의 여학생회 대중운동 방식은 하향식 지도, 즉 상층의 내용을 대중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힘을 다지기 보다는 상층의 요구로 재단하거나 동원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와 대중의 통일은 대중에 대한 깊은 이해, 이에 기반하여 힘을 모아내고 키워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안에 대처하는 운동방식을 고치고, 미리 준비하고 모아내고 만들어가는 대중운동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 취업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안을 연구하여 정책을 세우고 이를 대중과 합의하여 힘을 모아내는 것)

* 내용과 형식의 문제

여학생회 사업방식은 주로 보여주기식 들려주기식입니다.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

이런 점에서 많은 지도자가 할 수 있겠지만.

드는 형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의 형식을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냅시다. (예 : 광운대 해오름제때 새내기 장기자랑, 체육 대회때 신바람 4종경기, 삼육대 여학우 한마당, 건대 하루 기활동)

*** 흐름이 있는 대중사업, 총화하는 대중운동**

충노선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것은 그해 중점적으로 대중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심내용이며, 과제입니다.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 일은 잡다하게 정말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있는 흐름이 부재한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대중운동을 일구는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놓치지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중운동이 시기시기 적절하게 총화되어 정리되고 새롭게 과제를 잡아내어 다시 전개되어야 합니다. (예 : 건대 물갈이 운동에서 하루기활동, 한양대 여성학교에서 물갈이 운동으로, 광운대 성의식화사업에서 성폭력문제)

*** 전문화된 내용으로 대중운동의 고유영역을 확보하자**

학원자주화투쟁이나 조국통일투쟁같은 전체흐름에 녹아들어 가야하는 대중운동 속에서 여회는 표류하기 쉽습니다. 여학우들의 고유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일구어 낼 전문적인 내용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회의 범위가 방대해 지면서 여회는 고유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다른 학생회와 거의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운동의 전문적인 고유내용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연구가 더 되어 겠습니다. (예 : 여대생 취업특별대책수립요구(학내차원과 국가차원), 가로등 불켜기, 성폭력발생시 학칙 차원의 조치등)

(2) 연대사업을 중심으로(성과와 과제)

*** 남녀 평등화투쟁**

성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윤금이씨투쟁, 성특법투쟁을 벌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안 중심적이었으며 학교내의 흐름과의 통일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차별에대한 여학우들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하는 단편성이 있었습니다. 기간의 성폭력 문제를 잘 총화 계승하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취업의 문제를 문제화해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자주 통일투쟁**

기지촌 활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준비하려고 했지만 역시 주도적인 결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95년 통일을 준비하는 전문적인 통일 투쟁의 내용이 미리 고민되어야 하겠습니까?

*** 민중여성과의 연대**

7. 농촌활동 : 지구단위에서 여성농민신문을 제작하여 성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작업이 도여농과의 연대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후 도여농과의 연대와 창조적인 여농반 활동에 대한 연구가 과제입니다.

8. 기지촌 활동 : 여건상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었지만 성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학우들의 의식화 작업에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차원의 지도가 없었고, 지속적인 연대의 내용을 갖지 못한것은 농활과 함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여대협 동부지구 93년 총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연대조직인 서여대협과 지구단위에대한 논의는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과정을 과제로 하면서 이만 총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연구와 조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의 발판이 되리라 믿으면서 저희 동지 운영위는 이 총화를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동부지구의 모범으로 서여대협을 강화하고, 여학생운동의 발전으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